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

최 수 형*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 패널자료를 통해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행의 죄질에 따라 비행의 유형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비행과 같이 사소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비행과 같이 보다 심각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이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과정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비행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반복적 비행, 비행경력, 비공식낙인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I. 문제제기

오늘날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문제는 청소년비행의 특성상 청소년기의 비행을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시기의 비행 경험은 단순히 청소년시기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김준호·이순래, 1995). 또한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유형이나 정도에 있어서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Wolfgang et al., 1987). 이에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학에서 비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낙인이론가들이 먼저였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비행의 시작에 대한 원인에 집중하는 다른 전통범죄학적 관점의 이론들과는 달리 비행의 반복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즉, 낙인이론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필연적인 비행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조직, 우연, 일시적인 최초 비행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이는 낙인이론이 오늘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간 흐름에 따른 비행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발전범죄학적 논의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낙인이론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비행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공식적 처벌을 중심으로 한 낙인보다 부모, 친구, 이웃, 선생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거부, 오명등과 같이 비행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위사람들의 낙인을 강조하고 있다(Masueda, 1992; Foglia, 1997; 이성식 2006). 즉, 낙인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최초비행이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이며 그 원인으로 최초비행으로 인한 주위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낙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낙인이론은 낙인이 차후 비행에 영향을 주어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게 한다는 비행과정에 관한 논의로 횡단적 자료를 통한 설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직접적인 경험적 검증이 어렵다. 횡단적 자료는 시간에 따른 행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낙인이론에서 제시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미래의 비행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국내 외적으로 종단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낙인이론을 재검증해보려는 노력이 활

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간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비행과 낙인간 관계에 대한 연구

낙인이론은 사회가 일탈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낙인을 결과로 보기도 하고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먼저, 누가 낙인이 찍히는지, 어떠한 행위가 비행 및 범죄로 규정되어 낙인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낙인을 결과로 이해한다. 다음으로 낙인이 범죄와 비행을 지속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낙인을 원인으로 이해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낙인을 원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60-70년대 낙인이론은 지배적인 이론적 관점으로 자리 잡는 듯 하였으나 이후 이론 구성에 대한 빈약함과 경험적 연구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심각한 비평이 이루어지면서 80년대 중반부터 낙인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대해 낙인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경험적 연구과정에서 역시 낙인이론에서 제시하는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를 과도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Paternoster & Iovanni, 1989). 즉, 낙인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낙인이 최초비행이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낙인의 결과인 비행을 살펴봄에 있어서 반복적 비행에 한정지어서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종단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낙인이론 검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Paternoster, 1989; Visher et al., 1991; Kaplan, 1991; Matsueda & Anderson 1998; Spencer 1999; Bernburg, 2002; 이성식, 2006; 박현수, 정혜원, 2007).

지금까지 낙인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낙인’은 낙인을 부여하는 주체에 따라 사법처벌과 같은 공식낙인과 주위사람들에 의한 비난과 같은 비공식낙인으로 구분된

다. 초기 낙인이론적 논의에서는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공식적 낙인과 비행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1930년대 탄넨바움(Tannenbaum, 1938)의 연구로 시작으로 사법기관에 의한 낙인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Akers, 2000). 즉, 법적 처벌로 인한 공식적 낙인경험은 차후의 보다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Lemert, 1967). 이후 이러한 입장은 경험적으로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 낙인이 찍히면 차후의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Palamara et al., 1986; Kaplan & Johnson, 1991). 또한 발전범죄학적 논의에서도 청소년기의 법적 처벌로 인한 낙인경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성인기의 범죄행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ampson & Laub, 1993).

한편, 최근 들어 반복적 비행에 대한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굳이 사법제도의 처벌로 인한 공식낙인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의 비공식낙인을 경험하게 되면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Mastueda, 1992).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인식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자아의 반사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of self)'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타자들의 직접적인 낙인자체보다는 타자에게 낙인을 찍혔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자아형성 혹은 행위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행소년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Matsueda, 1992). 이에 비공식낙인과 비행간의 관계연구 가운데 주위사람들의 직접적인 낙인을 객관적 낙인으로 보고 자신이 인식한 주위사람들의 낙인정도를 주관적 낙인으로 구분지어 비행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낙인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인지한 주관적 비공식낙인 경험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riplett & Jarjoura, 1994). 즉, 이러한 결과를 확대하여 보면 심각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비행 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ink et al.,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처우 프로그램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처

우를 받는 동안 긍정적 강화로 인해 이전의 자아에 반사된 평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 검증해보이고 있다(Maruna et al, 2004). 국내 연구에서도 비공식낙인경험을 사회유대나 부모와의 긴장과 갈등,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요인을 함께 다룬 결과 ‘비공식낙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성식, 2006), 재범가능성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나타났다(이동원, 2006).

청소년비행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행위만 아니라면 사법처벌이나 통제를 받기 보다는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비난이나 오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처음부터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보다는 지위비행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위비행으로 인한 주위사람들의 비공식낙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공식낙인을 ‘비행자가 인지한 주위사람들에 의한 낙인’으로 개념화하여 이러한 비공식낙인이 반복적 비행에 대해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서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행연구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여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집단 내에서 존재하는 과거 비행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행을 처음 저지른 청소년과 비행을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죄질에서부터 비행을 저지르는 횟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소한 비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보다 심각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 비행은 단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비행에 대해서 원인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의 정도는 다

르다. 즉,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지위비행을 반복하는 청소년집단과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거나 빼앗고 폭력적 행위를 일삼는 비행을 반복하는 청소년집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비행의 죄질에 따라 부모, 선생, 이웃, 친구들과로부터 비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지위상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집단과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집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후 반복적 비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비공식낙인의 효과도 각 집단마다 다를 것이다. 즉,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한 주위사람의 반응과 술을 마신 청소년에 대한 주위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비공식낙인 경험이 차후 비행을 또 저지르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의 정도가 저지른 비행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집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행 유형에 따라 성격과 특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행죄질에 따라 주위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결국 자신이 인식하는 낙인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경비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주위사람의 비공식낙인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또 다시 경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보다 심각한 중비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주위사람의 비공식낙인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또 다시 동일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비행죄질에 따라 비공식낙인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위상 비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비행으로 개념화하고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와 보다 심각한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2.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이후 KYPS)¹⁾의 2, 3, 4차년도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KYPS의 조사방식은 청소년들의 경우 1차년도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시작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부터는 면접원과 학생과의 개별적 조사로 시행하여 조사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1차년도와 2, 3, 4차년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료수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²⁾. 특히 비행과 같은 민감한 질문의 응답은 조사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사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2,3,4차년도의 자료만을 사용한다³⁾.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1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2,3,4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2차년도가 실제 본 분석의 1차년도가 된다.

-
- 1) KYPS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식으로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학교 수는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학교추출은 학교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하여 추출된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한다. 2006년도에 실시한 4차 조사가 완료된 현재 표집 유지율이 90.5%로 학생을 기준으로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성공적인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현·임희진, 2007).
 - 2) 집단면접조사는 집단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집단면접조사는 질문지 응답 시 한사람의 발언이 전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나 옆 사람의 의견을 자문하여 본래 조사의 의도가 오염될 염려가 있다(김웅렬, 2001). 한편, 개별면접조사는 조사원의 의견이나 유도질문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김웅렬, 2001).
 - 3) 물론 비행경력에 지속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1차년도의 비행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패널조사의 1차년도라 할지라도 중 2때부터 시작된 조사이기에 그 이전의 과거비행경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행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비행경험은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해보았느냐”의 응답으로 측정되며⁴⁾ 경비행은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가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비행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협박하기’, ‘남을 심하게 조롱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뺏기’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비공식낙인은 타자에게 낙인을 찍었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 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 한다’의 두 문항을 사용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다. 즉, 이 연구에서 비공식낙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낙인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Amos 통계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분석을 통해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4) 청소년패널조사에서 비행경험 횟수에 대한 문항은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점(outlier)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댓값을 100회로 정하여 100회를 초과한 응답에 대해서는 최댓값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비행의 개별비행변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행분포에 따라 재부호화한 후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1,594명이며 남자청소년이 1,594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정도로 가정 내 수입은 100만원미만의 경우 3.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16.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27.1%, 3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이 26.4%, 400만원 이상의 경우가 25.8%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1,386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의 경우에도 역시 고졸인 경우가 1,825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측 정 항 목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자청소년	1,594	50.0	
	여자청소년	1,594	50.0	
	소 계	3,188	100.0	
가정 내 수입	100만원미만	110	3.7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03	16.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806	27.1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785	26.4	
	400만원이상	766	25.8	
	소 계	2,970	1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학력	중 졸	373	11.9
		고 졸	1,386	44.4
		전문대졸	216	6.9
		대학교졸	948	30.3
		대학원이상	201	6.4
		소 계	3,124	100.0
	어머니학력	중 졸	537	17.3
		고 졸	1,825	58.8
		전문대졸	153	4.9
		대학교졸	537	17.3
		대학원이상	51	1.6
		소 계	3,103	100.0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비공식낙인의 정도를 살펴보면 1차년도는 3.347이었고 2차년도에는 3.407, 3차년도에는 3.481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비행은 .807, .873, 1.025로 역시 증가하였으나 중비행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는 .641, .488, .368로 매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차별 주요 변인 기술적 통계분석

주요 변인	연 차 별	평 균	표준편차
비공식낙인	1차년도	3.347	1.580
	2차년도	3.407	1.512
	3차년도	3.481	1.639
경비행	1차년도	.807	1.131
	2차년도	.873	1.467
	3차년도	1.025	1.667
중비행	1차년도	.641	1.237
	2차년도	.488	.891
	3차년도	.368	.844

3. 비행유형에 따른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간 관계

1)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에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비행에 대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이다. 1, 2, 3차년도의 경비행의 경우 담배피우기에 대한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세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1, 2, 3차년도의 경비행의 관측변인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기 위해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모수 1로 고정시키고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1, 2, 3차년도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3>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구 분	경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담배피우기	1.00 (.687)	1.00 (.778)	1.00 (.756)
술마시기	.844*** (.503)	.794*** (.539)	.832*** (.573)
무단결석	.229*** (.323)	.252*** (.410)	.204*** (.390)
가 출	.123*** (.303)	.095*** (.304)	.088*** (.328)
구 분	비공식낙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문제아라는 낙인	1.00 (.926)	1.00 (.926)	1.00 (.935)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963*** (.944)	.994*** (.948)	.982*** (.94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화된 계수임.

다음으로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비행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담배피우기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관측변수들의 질적 차원을 인정하여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은 모두 .8점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

구 분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담배피우기	.472	.605	.572
술마시기	.253	.291	.329
무단결석	.104	.168	.152
가 출	.092	.093	.107

구 분	비공식적 낙인	
	문제아라는 낙인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1차년도	.866	.880
2차년도	.858	.899
3차년도	.875	.891

다음의 <표 5>은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의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모델의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 모델의 적합도는 X^2 (자유도)는 1885.338(126)이며 p값은 .000이며⁵⁾ RMSEA 값은 .064, CFI 값은 .970, NFI 값은 .967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8이하로 수용할만하며 CFI 값과 NFI 값이 .9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을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1차년도 경비행과 2차년도 경비행간 관계는 .563이며 2차년도 경비행과 3차년도 경비행간 관계는 .746으로 나타나 반복적으로 경비행을 저지러수록 경비행을 중단할 가능성은 더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공식낙인경험의 지속가능성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비공식낙인은 .418,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3차년도 비공식낙인간 관계는 .445로 나타나 역시 주위사람들로부터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경험이 많을수록 또 다시 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X^2 의 검증결과 p값이 .000 으로 분석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지수의 값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표 5>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경비행 → 2차 경비행	.813***	.563
1차 비공식낙인 → 2차 경비행	.114***	.160
1차 비공식낙인 → 2차 비공식낙인	.397***	.418
1차 경비행 → 2차 비공식낙인	.246***	.128
2차 경비행 → 3차 경비행	.852***	.746
2차 경비행 → 3차 비공식낙인	.235***	.163
2차 비공식낙인 → 3차 비공식낙인	.483***	.445
2차 비공식낙인 → 3차 경비행	.094***	.110
X^2 (자유도)	1,885.338***(126)	
RMSEA	.064	
CFI	.970	
NFI	.967	

*** p < .001

세 번째, 비공식낙인에 대한 경비행의 효과이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비공식낙인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가 .12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2차년도 경비행과 3차년도 비공식낙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16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지위상의 비행을 많이 저지름수록 주위사람들로부터 낙인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차년도에 경비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경비행을 저지름 경우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 경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이다.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경비행간 관계는 표준화 계수 .160,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3차년도 경비행간 관계는 .110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비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1차년도 경비행을 많이 저지름수록 2차년도

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비공식낙인경험이 많을수록 3차년도에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년도의 경비행경험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110)가 과거 2차년도의 경비행 경험(.746)보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비공식낙인이 비행을 또 다시 저지르게 하는 유발적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다음의 <표 6>는 반복적 경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제시한 것이다. 2차년도 비공식낙인은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1차년도 경비행으로 인해 22.5%의 설명력을 보이며 2차년도 경비행은 전년도 경비행과 전년도 비공식낙인으로 인해 41.7%를 보인다. 또한 3차년도 비공식낙인은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경비행으로 인해 23.8%를 보이며 3차년도 경비행은 전년도 경비행과 전년도 비공식낙인으로 인해 60.2%를 보이고 있다.

<표 6>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구 분	잠 재 변 인			
	2차년도 비공식낙인	2차년도 경비행	3차년도 비공식낙인	3차년도 경비행
R^2	.225	.417	.238	.602

2)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에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결과는 <표 7>와 같다. 중비행의 경우 때리기에 대한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다섯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고 비공식낙인의 경우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문항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중비행의 관측변인과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측변인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구 분	중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때리기	1.00 (.663)	1.00 (.723)	1.00 (.649)
패싸움	.509*** (.550)	.441*** (.499)	.446*** (.402)
조롱하기	1.080*** (.488)	1.118*** (.547)	1.359*** (.500)
협박하기	.707*** (.542)	.710*** (.625)	.854*** (.626)
훔치기	.561*** (.380)	.230*** (.192)	.403*** (.290)
뺏 기	.863*** (.570)	.573*** (.552)	.400*** (.370)
구 분	비 공 식 낙 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문제아라는 낙인	1.00 (.926)	1.00 (.925)	1.00 (.937)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973*** (.944)	.994*** (.949)	.983*** (.942)

*** $p < .001$ 괄호안은 표준화된 계수임.

다음의 <표 8>는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중비행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비행과 마찬가지로 질적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공식낙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8점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

구 분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때리기	.440	.522	.421
패싸움	.302	.249	.162
조롱하기	.238	.299	.250
협박하기	.294	.391	.392
훔치기	.145	.137	.184
뺏 기	.325	.304	.137

구 분	비공식적 낙인	
	문제아라는 낙인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1차년도	.858	.890
2차년도	.858	.899
3차년도	.874	.893

다음의 〈표 9〉은 중비행에 대한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간 구조모델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 모델의 적합도는 X^2 (자유도)는 3057.239(243)이며 p값은 .000이며⁶⁾ RMSEA 값은 .058, CFI 값은 .953, NFI 값은 .949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8이하로 수용할만 하며 CFI 값과 NFI 값이 .9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의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자. 첫 번째, 전년도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또 다시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의 정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1차년도 중비행과 2차년도 중비행간 관계는 .471이며 2차년도 중비행과 3차년도 중비행간 관계는 .631로 나타나 경비행과 마찬가지로 중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수록 중비행을 중단할 가능성은 더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의 잠재변인 간 관계에서 비공식낙인경험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비공식낙인에 대한 중비행의 효과이다. 1차년도의 중비행과 2차년도 비공

6) X^2 의 검증결과 p값이 .000 으로 분석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지수의 값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식낙인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가 .1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차년도 경비행과 2차년도 비공식낙인 관계(.128)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경비행보다 중비행을 저지룰수록 이후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2차년도 중비행과 3차년도 비공식낙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가 .089로 최초 중비행으로 인한 비공식낙인의 영향(.128)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는 상반된 결과로 과거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또 다시 중비행을 저지른다고 하여도 주위의 비난이 그 만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을 거듭할수록 주위사람들은 더 이상 비행에 대한 꾸지람이나 비난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는 등의 포기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은 사회의 통제와 제재 영역 밖으로 내몰리게 됨에 따라 보다 심각한 문제를 지닐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 중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이다.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중비행간 관계는 표준화 계수 .109,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3차년도 중비행간 관계는 .052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비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1차년도 중비행을 많이 저지룰수록 2차년도 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비공식낙인경험이 많을수록 3차년도에 또 다시 중비행을 저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차년도에 이은 3차년도의 중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052)가 앞서 살펴본 경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110)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있어서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비공식낙인의 효과보다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게 된 결과이다.

<표 9>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중비행 → 2차 중비행	.389***	.471
1차 비공식낙인 → 2차 중비행	.025***	.109
1차 비공식낙인 → 2차 비공식낙인	.397***	.418
1차 중비행 → 2차 비공식낙인	.457***	.135
2차 중비행 → 3차 중비행	.526***	.631
2차 중비행 → 3차 비공식낙인	.399***	.089
2차 비공식낙인 → 3차 비공식낙인	.504***	.464
2차 비공식낙인 → 3차 중비행	.010***	.052
χ^2 (자유도)	3,057.239*** (243)	
RMSEA	.058	
CFI	.953	
NFI	.949	

** p < .01 *** p < .001

다음의 <표 10>은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제시한 것이다. 2차년도 비공식낙인은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1차년도 중비행으로 인해 22.7%의 설명력을 보이며 2차년도 중비행은 전년도 중비행과 전년도 비공식낙인으로 인해 26.5%를 보인다. 또한 3차년도 비공식낙인은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중비행으로 인해 23.8%를 보이며 3차년도 중비행은 전년도 중비행과 전년도 비공식낙인으로 인해 41.3%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 구조모델에서 나타나는 다중상관자승의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구 분	잠재변인			
	2차년도 비공식낙인	2차년도 중비행	3차년도 비공식낙인	3차년도 중비행
R^2	.227	.265	.238	.413

이처럼 비행의 죄질에 따라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비행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 대부분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점차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에서 비공식낙인의 효과가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흡연이나 음주, 무단결석, 가출등과 같은 경비행에 대한 올바른 교육방식을 사용하여 차후 또다시 경비행을 저지르게 되거나 혹은 좀 더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비행 발생 건수의 상당부분이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주장되면서 범죄원인론 가운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과정에 주목한 낙인이론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단적 연구 자료를 통해 낙인이론을 재검증해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즉, 비공식낙인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반복적 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집단의 특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행죄질에 따른 비행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비행과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모두 비행을 많이 저지른수록 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후에도 비행을 또 다시 저지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비행보다는 중비행을 저지른 경우 주위로부터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공식낙인으로 인한 반복적 비행을 저지릴 가능성은 중비행보다 경비행일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경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보다 부모와, 친구, 선생등과 같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더 많

이 경험하게 되지만 이미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위로부터의 비난이나 오명, 주위의 부정적 시선 등은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반복적 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반복된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다양한 비행경로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비공식낙인이 어떠한 경로로 반복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낙인이론적 관점에서 종단적 연구를 사용하여 비행을 저지른 후 주위사람들로부터 낙인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비행을 또 다시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비행유형을 세분화하여 반복적 비행과정에서의 비공식낙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비행죄질에 따른 비공식낙인 효과의 차이를 밝혀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행의 죄질에 상관없이 부모,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로부터의 비행의 결과인 비공식낙인은 반복적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비행에 있어서 주위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거칠고 공격적이며 부모나 학교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즉, 청소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는 별개의 집단으로 이해하여 문제아로 단정짓고 편견을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낙인찍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행청소년이라고 낙인찍힌 청소년은 자신이 정말 사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과는 같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멀리한 주위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 지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심각한 범죄에까지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을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별개의 집단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처벌이나 제재는 지양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여 비행청소년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임희진(2007). 패널데이터의 기초활용방법-한국청소년패널 사례분석.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 김응렬(2001).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준호·이순래(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노성호(2007). 비행의 발전에 대한 대립적인 범죄이론의 비교검증. 제4회 한국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집. pp. 363-386.
- 박현수·정혜원(2007). 낙인의 동태적 영향과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2007년 대한범죄학회 후기 학술대회발표집. pp. 66-80.
- 에이커스(Akers, R. L.)(2000). 범죄학이론. 민수홍·박기석·박강우·기광도·전영실 역. 지산.
- 이동원(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5권, pp. 335-367.
- 이성식(200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 종단적 패널연구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 15-33.
- 이순래(2007). 일탈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심포지엄 발표집. pp. 83-113.
- Bernburg, J. G(2002). *State reaction, life-course outcomes, and structural disadvantage: a panel study of the impact of formal criminal labeling o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in the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Foglia W.(1997). Perceptual deterr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Norms among inner-city teenag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4*, pp. 414-442.
- Kaplan, H. B. and R. J. Johnson(1991). Negative social sanctions and juvenile delinquency: effects of labeling in a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2*, pp. 98-122.
- Lemert, E(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ink, B. F. Cullen, E. ShROUT and B. Dohrenwend(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 An empirical assesment.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54, pp. 400-423.
- Matsueda, R.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7, pp. 1577-1611.
- Maruna S., L. Thomas M. Nick and M. Michelle(2004). Pygmalion in the Reintergration Process : Desistance from Crime through the Looking Glass, *Psychology, Crime, and Law*, Vol. 10, pp. 271-281.
- Matsueda, R. L. and K. Anderson(1998). The Dynamic of delinquency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Vol. 36, pp. 269-308.
- Palamara, F., F. T. Cullen, and J. C. Gersten(1986). The Effects of Police and Mental Health Intervention on Juvenile Justi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7, pp. 90-106.
- Paternoster, R(1989). Absolute and restrictive deterrence in a panel of youth. *Social Problem*, Vol. 36, pp. 289-309.
- Paternoster, R. and T. Iovanni(1989). The Labeling perspective and delinquency : an elaboration of the theory and an assessment of the evidence. *Justice Quarterly*, vol. 6, pp. 359-394.
- Sampson, Robert J. and J. H. Laub(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pencer, D. L.(1999). Legal sanctions and youths' status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Justice Quarterly*, Vol. 16, pp. 376-401.
- Triplett R. A. and G. R. Jarjoura(1994). Theoretical and Empirical Specification of a Model of Informal Label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0 No. 3, pp. 241-276.
- Visher, Cirsty A., P. K. Lattimore, and R. L. Linster(1991). Predicting the recidivism of serious youthful offenders using survival models. *Criminology*, vol. 29, pp. 329-366.
- Wolfgang, M. E., T. P. Thornberry, and R. M. Figlio(1987). *From boy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Informal Labeling on Persistent Delinquency

Choi, Soo-Hyeong*

This study seeks to test a labeling theory on persistent delinquenc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mpiled from the Korea Youth Panel, compil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elinquency is classified into minor delinquency and serious delinquency. We conclude that juveniles who engage in delinquency experience informal labeling and juveniles who are informally labeled engage in repeat delinquency. Therefore, informal label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peated delinquenc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formal labeling has a greater effect on minor delinquency than serious delinqu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they demonstrate how positive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juvenile delinquents must form the basis of prevention programs for persistent delinquency. The findings also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iversify its search for the causes of persistent delinquency.

Key Words : delinquency, persistent delinquency, delinquent career, informal labeling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7월 8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

* Korea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